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BOY WHO MADE THE WORLD DISAPPEAR

가제 :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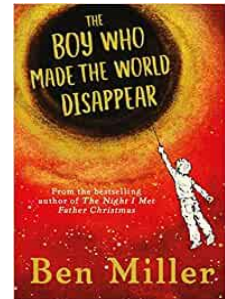
저자 : Ben Miller

출판사: Simon & Schuster Children's UK

발행일: 2019년 11월 14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문학



#### \*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블랙홀 풍선을 가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해리슨은 너무나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벌게 지면서 헐크처럼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 때가 있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날 예상치 못한 선물이 주어졌다. 해리슨은 이 선물로 무슨 일을 벌이게 될까?

평소 해리슨은 종종 침대에 있는 엄마에게 손수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자기 장난감을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동생 라나에게도 거리낌없이 장난감을 양보했다. 뿐만아니라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는 못된 친구일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토록 고운 마음을 가진 그에게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갑자기 확 끓어오르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누가 조금이라도 그를 화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이성을 잃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발길질을 해댔다.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는 날이면 해리슨의 아빠는 '코드 레드'라고 소리를 치면서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야 했다. 헐크 같이 변해버린 해리슨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해리슨은 스스로 자신의 방 주변에 장난감을 이용한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놓고 문을 광 닫고 방안으로 들어가버리곤 했다. 해리슨이 이렇게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는 단순히 화가나서가 아니라 주로 어떤 심각한 걱정 때문에 휩싸였기 때문이었다. 처음 해리슨의 부모를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은 해리슨이 그저 화가 났기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해리슨이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하는 마음에 헐크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저 해리슨이 스스로 진정이 될 때까지 애써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헥터 브룸의 생일이 다가 오기 몇 주전, 해리슨은 벌써부터 초초해하고 있었다. 헥터는 해리슨의 반에서 가장 덩치가 큰 학생이었는데 갖은 방법으로 해리슨을 못살게 구는 못된 아이였다. 하지만 반 전체 학생들이 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리슨 혼자만 파티에서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딱 하나, 해리슨이 그 파티를 견딜 수 있을만한 것이 있

었다. 그것은 바로 그날 파티의 주제가 '우주'라는 사실이었다. 해리슨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별과 행성을 좋아했고 게다가 그날 파티에 '셀리'라는 진짜 우주 비행사도 오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순 없었다.

해리슨의 학급 친구들은 파티 주제에 맞게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행성이나 우주인의 모습을 하고 파티 장소에 모였다. 해리슨 역시 곧 우주비행사를 만난다는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다. 하지만 곧 뒤에서 음흉하게 속삭이는 핵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해리슨을 괴롭힐 때 쓰는 고무줄을 딱딱 거리며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고 게임이 시작 되면 해리슨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해리슨은 핵터의 부모님이 자리를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누가 자신을 보호해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온 몸이 딱딱 굳어버렸다. 파티가 시작 되자 우주비행사 셀리가 아이들 앞에 등장했고 누가 자신과 우주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이에 아이들은 모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핵터의 공격이 시작 된 것을 직감한 해리슨은 핵터에게 자신을 건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란 셀리가 해리슨을 쳐다보자 해리슨은 우주 따위에는 관심도 없으니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셀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누워보라고 말했다. 바닥에 누워 있던 아이들은 셀리의 지시에 따라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해리슨과 다른 아이들의 눈 앞에는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중에는 블랙홀의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해리슨은 핵터의 고무줄 공격 때문에 두려웠던 나머지 불안해하고 있었고 셀리가 요청한 게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험크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리고 방 구석 구석 뛰어다니며 온갖 물건들을 발로 차고 다녔다. 그는 모든 것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 사라지길 바랐다. 결국 파티는 엉망이 되었고 셀리는 서둘러 파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풍선과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해리슨 역시 끈이 달린 풍선 하나를 받았는데 셀리는 그에게 풍선을 건네며 그 풍선을 만지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집으로 풍선을 가지고 온 해리슨은 도저히 그 검은 풍선에서 눈을 떼 수 없었다. 마당에서 해리슨이 어두컴컴한 풍선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 때, 갑자기 이웃집 개가 해리슨에게 뛰어들었고 해리슨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그 개가 혹시 이 풍선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 어떨까 하며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 날 밤 해리슨은 코끼리 인형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해리슨의 예상대로 풍선이 어찌면 블랙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해리슨은 이제 이 블랙홀 풍선을 이용해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해리슨의 바람과는 달리 그 풍선은 해리슨이 아끼는 존재들까지 집어 삼켜버렸다. 해리슨은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남들과는 조금 다른 한 소년의 이야기에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놀라운 모험담이다.

#### <저자 소개>

벤 밀러 (Ben Miller) 는 배우이자 감독, 코미디언으로 자신이 직접 대본을 쓴 'The Armstrong and Miller Show' 와 패딩턴 2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제목 : FIRE GIRL, FOREST BOY  
가제 : 불의 소녀와 숲의 소년  
저자 : Chole Daykin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9년 7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모험



**\* 페루 열대 우림 한 가운데에서 한 소녀와 소년이 만나면서 펼쳐지는 스릴 넘치는 모험담**

마야는 탈출해야만 했다. 마야는 대체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 곳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쉬지 않고 달리는 일뿐이었다. 한편 라울 역시 마야와 마찬가지로 무작정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라울은 이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한바탕 문제를 일으킬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와 라울은 정글 한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었다.

페루의 오야인타이탐보 계곡 즉, 성스러운 계곡. 이곳은 한때 고대 잉카인들의 땅이었으며 지금은 라울이 고향을 떠나 이년 째 살고 있는 곳이었다. 라울의 집은 언덕 위 이 계곡이 시작되는 곳에 있었다. 라울에게 이 미로 같은 도시의 벽돌이나 매끈하게 잘 닦인 길은 여전히 너무나 낯선 것이었다. 라울이 처음부터 이런 도시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울은 언제나 나무들에 둘러싸여 살았었다. 라울이 여기까지 떠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라울은 그 날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타 들어가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그 날 이후 라울은 도시에 살면서도 날마다 다시 고향 '이퀴토스'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세상의 일은 그리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았고 이제는 아무도 고향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라울의 생각은 달랐다. 거대국제기업의 손에 아름다운 고향 땅의 나무들이 사라지고 자신과 같은 원주민들의 후예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아마존 숲 속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가득한 밴 위에 올라 탔고 모두가 잠들어 있던 캠프에서 조용히 빠져 나왔다. 그리고 기적처럼 히치하이킹에 성공했고 자신을 목적지로 데려다 줄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날은 이퀴토스로 떠나는 항공편이 없는 날이었고 망연자실한 라울은 공항을 헤매던 중 오래 전 아빠의 친구였던 오마르 아저씨를 만났다. 오래전 고향을 떠난 오마르 아저씨는 이제 짐을 운반하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되어있었다. 그리고 마침 그는 오늘 이퀴토스로 비행을 가는 날이었다. 덕분에 라울은 그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마야는 페루의 깊은 아마존 숲 속을 헤매고 있었다. 물론 이 미지의 장소에 처음부터 마야 홀로 온 것은 아니었다. 마야는 사실 고향 글래스고를 떠나 과학자인 아버지 한디 앤더슨 박사를 따라 이 곳까지 온 것이었다. '빛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녀의 아버지는 이곳에 와서

연구를 진행하며 물리학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카메라로 장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찍어내는 듯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마야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의 강연과 놀란 청중들에 대한 인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사라져버렸고 홀로 남은 마야가 그 뛰어난 기억력으로 이 오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보였다. 마야의 아버지가 이 우림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인간의 꿈과 기분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카탄’, 즉 영혼의 꿀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앤더슨 박사를 비웃었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했다. 앤더슨 박사는 작년에는 그 카탄을 찾기 위해 남극, 노르웨이로 떠났었고 이 무모한 여정에 함께 했던 마야는 그런 아빠 덕분에 빙산도 실제로 보고 이누이트 족까지 만나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마존까지 온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마야와 아빠의 현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던 한 여자와 붉은 얼굴을 가진 남자는 마야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사라졌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아빠가 사라진 후 마야는 페루에 오기전 아빠가 받았던 수상한 편지의 첫 줄에 적혀있던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 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편지가 아빠를 이 먼 페루까지 이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아빠가 사라지기 전, 가이드들과 아빠가 숲 속으로 탐험을 위해 떠났던 그 날 밤, 마야는 홀로 숙소에 있다가 숲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었다. 마야는 걱정 때문에 뜯 눈으로 밤을 지냈고 다음 날 아침 아빠만 빼고 두 가이드만 그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분명 아빠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음을 확신했다. 마야는 두 가이드가 건넌 아빠의 편지를 읽어보았다. 하지만 마야는 연구를 마치고 돌아갈 테니 일단 혼자 먼저 집으로 가라는 아빠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영리한 마야는 아빠가 누군가에게 납치 되었으며 두 가이드 역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곳에서 당장 도망쳤다. 마야는 난생 처음 나무 줄줄기를 타고 도망치던 중 그만 바닥에 난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온 몸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뜬 마야는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는 한 소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오마르 아저씨를 따라 이퀴토스의 정글 마을로 돌아오게 된 라울과 아빠를 찾아 헤매고 다니던 마야는 정글 한가운데에서 만나게 된다.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결국 두 사람을 불행 속으로 몰아 넣은 공동의 적이 ‘아시우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즉, 아마존 우림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한 불법 벌목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회사는 아마존과 지구의 환경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이용하고 있었다. 서로 너무나 다른 배경, 인종과 성격을 가진 두 주인공들이 만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악에 맞서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클로이 데이킨 (Chloe Daykin)은 수상 경력이 있는 극작가이자, 디자이너, 교사이다. 데뷔작 『Fish Boy』로 Northern Writers Award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Branford Boase Award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